

인터뷰

제 1 회 한국파렛트산업대상

Korea Pallet Industry Award Ceremony

(사) 한국파렛트협회(회장 이병성)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회 2004 한국파렛트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아시아 각국에 T-11형을 널리 홍보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써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생산부문에서 (주)덕유가 표준품질 대상을 (주)골드라인이 금상을, 이견산업(주)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일관파렛트화 사용자 부문에서는 남해화학(주)이 대상을, 한국제분(주) 목포공장이 금상을, 오미아코리아(주)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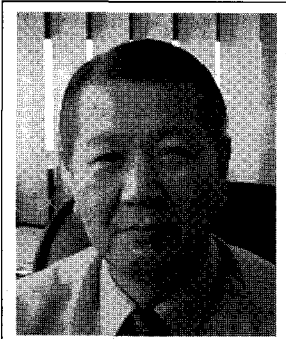
이병성 회장은 "T-11형의 보급확산을 통해 국내 물류표준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효율화를 제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렛트 문화대상을 개최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에 일관파렛트화 추진확산을 도모하고 파렛트의 규격 및 품질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파렛트 산업대상은 국내 기업의 일관파렛트화를 촉진시키고 파렛트의 생산, 운영 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제1회 한국파렛트산업대상 수상 업체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표준품질 대상

표준파렛트 생산 투자, 품질향상 도모



김 휘 일
(주)덕유 대표이사

국가표준화를 통해 효율적 물류체계의 성립과 비용절감 등에 기여한 기업의 육성 장려를 위해 한국파렛트협회가 실시한 제1회 한국파렛트산업대상에서 (주)덕유가 표준품질(생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휘일 사장은 “현재 파렛트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면격자구조의 핸드카용 파렛트를 생산하여 파렛트 품질향상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주)덕유는 지난 1977년 수원에 주식회사 한성을 설립, 플라스틱 산업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산업용 플라스틱 운반용기 전문생산업체로 성장했으며 1987년 12월에는 충북 괴산에 주식회사 덕유(제2공장)를 설립하고 초대형 사출기(형체력 2,000ton ~ 4,000ton)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물류체계의 구축과 공장자동화를 이뤘다. 이후 지난 87년 충북 괴산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초대형 사출성형기(2000t ~ 4000t)를 도입, 플라스틱 파렛트와 상자를 생산하고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업체로서 생산량의 80% 이상을 표준규격의 파렛트를 일일 평균 3,000매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덕유는 고객만족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하고 있다.

김휘일 사장은 “고객 만족형 제품생산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납품업체로부터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금형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여 각종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공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덕유는 자동화 창고용, 일반지게차용, 핸드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다.

김 사장은 “표준파렛트 생산라인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파렛트 표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표준파렛트 생산업체 (주)덕유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파렛트 국제규격 인증 · 실용신안 보유



이 홍 기

(주)골드라인 대표이사

플라스틱 및 철재, 목재 소재의 물류기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주)골드라인이 한국파렛트산업대상 표준품질(생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91년 설립된 (주)골드라인은 플라스틱 파렛트를 비롯해 다양한 물류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파렛트 생산 업체이다.

골드라인은 파렛트의 국가표준 모델인 T-11형(1100×1100mm) 생산과 함께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고 고강도 하중 설계 등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한 점과 일본에 25억원을 수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02년부터 골드라인은 중국 목재파렛트 검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로봇용접방식 일회용 스틸 파렛트를 개발, 이를 통해 업계로부터 물류대응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홍기 대표이사는 “현재 파렛트 생산량의 88% 이상을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특히 KS와 ISO 9001 국제규격 획득으로 엄격한 파렛트 품질검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드라인은 그동안 표준파렛트의 품질을 위해 KS와 ISO 9001 시리즈 등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적재용 파렛트의 미끄럼방지에 관한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와 공동으로 내화벽돌용 철재파렛트를 개발하여 내화벽돌제조 업체의 표준파렛트 사용을 유도하여 물류표준화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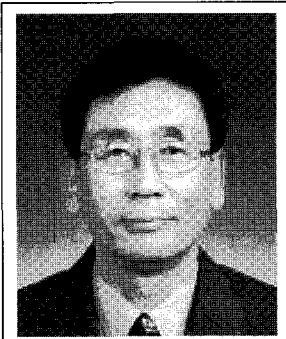
현재 골드라인은 플라스틱 파렛트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광주에 연면적 2,300평의 공장을 신축, 물류기기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주)골드라인은 일본,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의 점진적 확대 및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기업으로 물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기 사장은 “국내 파렛트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류표준화 보급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물류표준화의 근간인 표준파렛트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표준품질 우수상

목재부산물 이용 친환경 그린파렛트 생산



이경봉

이건산업(주) 대표이사

환경친화적인 그린파렛트를 생산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는 이건산업(주)이 파렛트 표준품질(생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봉 사장은 경영혁신의 슬로건을 “새로운 조직과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건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뉴이건(New Eagon) 운동”으로 내세우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회사의 내실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친화적 상품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친환경프로젝트’를 실행, 환경경영을 선포하고 환경친화적 상품분야를 집중육성하는 핵심사업을 재구성했다.

특히 그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표준파렛트 규격인 1100mm×1100mm 그린파렛트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표준화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에도 기여했다.

현재 이건산업(주)은 총 파렛트 생산량의 약 75%를 표준규격파렛트로 생산하고 있으며 목재부산물 및 재생자원을 원자재로 그린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물류포장시스템인 이건 클립락(Clip-Lock)을 개발, 호평을 받았다.

이경봉 사장은 “이건산업(주)은 남태평양 솔로몬군도에 조립지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원목의 직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클립락은 기존의 나무포장재가 나무판을 못으로 연결해 한번 사용하고 나면 폐기해야 하는 불편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여 합판을 철심클립으로 연결하여 사용 후 간편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연구소에 박사/석사급을 포함한 인력 15명을 구성해 목재를 이용한 합성재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Wood-Polymer Composite 계통의 소재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과 기술개발에 있어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소사장제 도입을 통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파렛트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건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



장 경 택

남해화학(주) 대표이사

“기업의 이윤보다 농업인의 풍요와 번영을 먼저 생각하자는 이념으로 신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갖고 세계최고로 지향하는 청년기업으로서 21세기 인류의 풍요를 약속하는 무한 가능성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파렛트산업대상 일관파렛트화 사용자 부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남해화학(주) (대표이사 장경택)은 비료, 화학제품, 농자재 등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 화학회사로서 저가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키고자 설립, 농협중앙회가 최대주주이다.

남해화학(주)은 약 400,000매의 표준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규격, 화차규격, 파렛타이저 규격 등을 표준파렛트와 모듈화함으로써 일관파렛트시스템을 보다 강화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비료시장 수요의 50%를 생산, 공급하며 비료업계를 선도하는 남해화학은 비료의 일관파렛트화와 수송의 기계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비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한 결과 비료업계의 일관파렛트화의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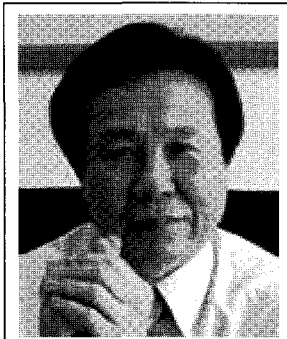
남해화학의 일관파렛트시스템이 한국 비료업계의 모델이 되어 생산에서 출하 및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환적하지 않고 일관파렛트화 확산에 기여했다. 품질과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ISO 9002와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을 위해 복합비료 생산공정을 개조하여 입자크기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비료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1997년 이전에는 공장에서 생산만 하고 운송은 농협중앙회 부담이던 방식이 바뀌어 농협창고까지 배달하는 창고입고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측의 원하는 시간에 공급을 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물류기지와 일관파렛트화를 추진하게 되어 비료의 적기수급과 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의 기업으로 30년간 농가의 이익증대에 기여해 온 남해화학은 앞으로 기업의 이윤보다는 농업인의 풍요와 번영을 먼저 생각하며 국내 토양에 맞는 비료를 연구 개발하여 생산·공급함으로써 농가의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일관파렛트화 금상

일관파렛트시스템 통해 표준화 사업 동참



윤 석 하

한국제분(주) 목포공장 대표이사

“이번 수상을 국가물류 발전에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생각 하며, 물류부분 비전을 UNIT-LOAD SYSTEM의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파렛트산업대상”의 가치를 드 높여 물류부분에 혁신을 주도하는 업체들에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1회 한국파렛트산업대상 사용자부문 금상을 수상한 한국제분(주) 목포공장(대표이사 윤석하)은 1956년 창사 이래 제분사업을 주력으로 제빵용, 제면용, 제과원료인 소맥분을 공급하는 기초 식품제조업체로서 최신의 설비와 고품질의 원료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경영을 통해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1988년부터 일관파렛트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파렛트폴사의 T-11 표준파렛트를 사용하였으며 포장규격을 3가지로 단일화하여 적재시에 표준모듈을 이용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관파렛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품포장라인에 적재용 로봇 2개와 파렛 타이저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적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제분(주)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관파렛트시스템과 물류자동화를 통해 국가표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일관파렛트의 사용에 있어 한국파렛트폴(주)과 계약을 통해 파렛트의 공급, 회수, 반납 등 상호 업무 처리의 유기적 협조로 기존의 비규격화된 파렛트 사용시 발생되던 문제점(회수, 위생, 관리)이 해결되었으며, 수급 불균형(재고관리 미비) 발생시 규격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파렛트 사용 업체들간의 재고 조정을 통하여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윤석하 사장은 “일관파렛트(T-11형)가 국제기준(ISO-6780)으로 인증됨으로 해서 국가물류 표준화에 이어 국제물류 NETWORK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국제분(주)은 포장에서 출하까지 UNIT-LOAD SYSTEM 확립하고 포장규격 및 사용부분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 아시아 및 세계화 지향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점진을 통해 국가물류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물류 자동화 통해 국제표준화 사업 동참



정 충 시

오미아코리아(주) 대표이사

“제1회 한국패렛트산업대상에서 사용자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적인 물류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수상기업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내 패렛트산업 발전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패렛트산업대상에서 사용자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오미아코리아(주)(대표이사 정충시)는 1977년 한국필라화학에서 출발하여 1981년 스위스 오미아그룹이 100% 투자한 기업으로 석회석에서 추출되는 탄산칼슘을 제조하여 제지와 페인트, 플라스틱, 화장품, 치약, 벽지, 타이어, 의약품 등 80여가지 제품에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인 탄산칼슘 제조에만 전념해

온 회사이다.

오미아코리아는 품질과 환경경영을 위해 업계 최초로 ISO 9002와 ISO 14401을 획득하여 품질 및 환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평균매출액 증가율이 40%를 상회하는 놀라운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포장규격 팔렛타이저 규격 등을 표준팔렛트와 모듈화함으로써 일괄 팔렛트 시스템을 보다 강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물류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일괄 팔렛트시스템을 위한 포장단위의 표준화 및 표준팔렛트의 임대사용, 자동 팔렛트시스템을 위해 포장단위의 표준화 및 표준팔렛트의 임대사용, 자동 팔렛타이저를 도입하여 1997년부터 공장 준공과 함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오미아코리아는 공장에서는 생산만 담당하고 운송은 창고까지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공급을 하는 물류기지화 일괄 팔렛트화를 추진하여 적기 수급과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물류 자동화를 통해 국제표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일괄팔렛트화와 기계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 및 제품 수급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노력으로 일괄팔렛트화 추진할 것이다. ☎